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도, 내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감사인력 투입 인사이동 등 이유 근무태만 행위 등 감찰

전북도는 최근 인사이동과 함께 휴가철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안전 취약지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한다.

지난 6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찰반은 도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7명으로 편성하여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하여 복무감찰은 물론

각종 재난대비 예방실태 등을 집중 감찰한다.

이번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인사이동 및 휴가를 이유로 대민행정 지연, 근무지 무단이석 및 근무 중 음주·취침·도박 등 근무태만 행위, 금품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특혜성 계약 및 불법 인·허가 등에 대한 음성적·고질적 비리를 중점 감찰한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 응급·축대·절개지 등 재해취약시설, 재난 위험 경보시설, 해수욕장·계곡 등 응급 구조원 배치, 피서객 안전대응 등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퇴근하고 가볍게 맥주를 한잔한 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혈중알콜 농도가 0.05%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벌할 계획이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인사이동과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시 안전관리 비상체계 등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특별 공직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6일 도청공영장에서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마을의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농촌마을 활성화를 도모기 위해 송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신승철 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 대표, 최광식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4개분야 12개팀, 마을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행사를 가졌다.

정부 문화정책2030... 전북 문화예술계 대응방안 모색

전북문화관광재단, 12일 문화정책포럼 '담론과 담화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우석대학교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이재규)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전북예술회관 1층 기스라2실에서 '2018 문화정책포럼 담론과 담화'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문화분권 실현과 관련 정부 문화정책 발표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새 문화정책을 만든 정부의 관점과 지역 문화정책을 만들어가는 전북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비전2030 수립에 직접 참여한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주제로 새로운 문화정책인 '사람이 있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의 수립 원칙과 과정 등을 소개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부장은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의 정책환경과 현실과제를 주제로 지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화비전2030에 대한 대응방안과 문화자치에 대한 현실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원도연 원광대학교수의 진행으로 문운걸 예원예술대학교수, 조세훈 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최기

우 최명희 문화과 화예연구실장이 지역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듣는 종합토론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전북의 문화예술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신청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2부 종합토론에서는 참여자 전체가 함께하는 자유토론도 갖는다.

한편, 전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재단 설립 초기부터 지역의 현안이 되는 주제로 매년 2~3회 문화정책포럼을 갖고 이를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tct.or.kr)와 정책기획팀 전화(063-230-7422)로 확인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지역발전 위해 열심히 일할 것”

권익현 부안군수

민선 7기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안군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행정, 상생하는 부안'을 건설하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권익현 군수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조선왕조가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언로(言路)가 트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언론과 함께 부안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부안 군정에 이끌어 가는데 있어 언론은 동반자적



민선 7기 권익현 부안군수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행정, 상생하는 부안'을 건설하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은 집중호우 권익현 군수가 피해지역 현장행정을 벌이고 있는 모습.

관계"라며 "부안발전이라는 대승적인 목표는 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민선 7기 부안 군정에 있어 부족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며 "언론 및 군민과 소통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북도,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안전장치 타이머 콕 보급 ·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으로 교체

전북도는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사업 및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중간밸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가스안전 장치(타이머 콕)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사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가스공급이 차단되는 안전 장치로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가스 과열에 의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으며,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낡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퓨즈콕(중간밸브)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사업대상은 도내 저소득층

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만500여 가구이며,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과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가구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만4,000여 가구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여 가스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으며, 가스시설 개선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만여 가구를 개선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과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 산업진흥과 성종용 과장은 "가스 안전장치 보급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서 취약한 계층의 가스시설

을 개보수하고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인사

◇과장급 전보

- ▲예산과장 황철호 ▲정보화총괄과장 김경주 ▲법무행정과장 장영희 ▲사회재난과장 유태희 ▲비서실장 장명균 ▲총무과장 이경진 ▲자치행정과장 김성관 ▲회계과장 이송희 ▲농업정책과장 김종필 ▲농촌활력과장 김창열 ▲친환경유통과장 정형섭 ▲축산과장 이상재 ▲동물방역과장 이종환 ▲문화예술과장 안동환 ▲체육정책과장 고재욱 ▲환경보전과장 김호주 ▲자연생태과장 양영철 ▲사회복지과장 지충렬 ▲교통물류도로과장 김현우 ▲함안공항하천과장 김종해 ▲주택건축과장 유용 ▲일자리경제정책관 유근주 ▲투자유치과장 차주하 ▲미래산업과장 라태일 ▲정보기획과장 장경운 ▲국제협력과장 육홍기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한일수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과장 권석주 ▲농업기술원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영권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장 안민실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장 김주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이성구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권도하 ▲농업기술원 친환경기술소장 이상환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김희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장 송현숙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2과장 강복대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신평우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도로관리사업소장 최정일 ▲과연관추호, 이길수, 이희영, 이후천, 정선엽, 박선식

▶ 전주시 인사

- ◇3급 승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 ◇4급 승진 ▲총무과최현창 ▲문화정책과황권주 ▲생태도시계획과김종엽
- ◇5급 승진 ▲문화정책과권병만 ▲기획예산과노

- 은영 ▲회계과유희영 ▲총무과임숙희 ▲여성가족과김미선 ▲푸른도시조성과 문애진 ▲일자리청년정책과이재수 ▲총무과최병노 ▲자원순환과 최규중 ▲푸른도시조성과 김대현 ▲에너지전환과 황의석 ▲도시재생과 정진 ▲생태도시계획과 정진희 ▲체육산업과 김성수 ▲건축과 유상봉 ▲생태도시계획과 서봉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꿈을 말하다, 전주대를 만나다.

FIND YOUR DREAM AT JEONJU UNIVERSITY

나도 몰랐던 나의 가능성을 만나는 곳,
전주대학교에서 꿈과 기회를 찾는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19학년도 전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기간: 2018. 9. 10 (월) 09:00 ~ 9. 14 (금) 18:00
입학지원금: 063 220 2700-6 입학사정관: 063 220 3234-5
정시모집 기간: 2018. 12.29(목) 09:00 ~ 2019. 1. 3 (목) 18:00
입학홈페이지: www.jjacr.kr/phak /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참조.

전주대학교